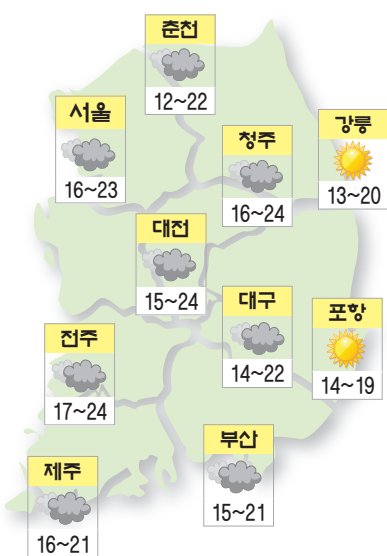


SOCIETY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23 날씨 02:30
 예보 19:35 날씨 15:08

미세먼지
확산하세요!

광주	구름	16~22
목포	구름	16~22
여수	구름	16~21
순천	구름	16~23
구례	구름	16~24
광주	구름	16~21
함평	구름	16~21
함도	구름	16~21
죽산도	구름	14~18
진남	구름	15~22
고흥	구름	16~21
진도	구름	16~21

목포	미물 (고)	10:26 / 23:10
여수	미물 (고)	05:40 / 18:15
순천	미물 (저)	11:54 / --:--

군 복무 중 상관 모욕 '유죄'

만년필

○...군 복무 당시
상관을 욕설한 제

대 군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

법 제2형사부 김중석 재판장은 상

관모독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

진 제대군인 A씨(22)의 항소심에

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2023년 7월 30일 오

전 10시 30분께 계룡대군무지원단

식당관리관을 욕설한 혐의로 기

소. A씨는 당시 식당관리관에게

“너는 몇 번을 지책하는데도 모자

를 안 쓰냐” 등의 지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 장병 앞에서 상사 계

급인 상관을 모욕했다고.

이에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양

형 요소를 충분히 참작했다”면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

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

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광주시민·직원에게 사과”

산업용 전자레인지 이물질 원인... 방화문 정상 작동

근로자 휴업수당·고용정책 등 생계 대책 검토 예정

금호타이어가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대피 도중 부상을 입은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사과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공장 면회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명선 금호타이어 부사장과 김용훈 광주공장장, 성용태 노사협력 상무, 김옥조 커뮤니케이션선 상무가 자리했다.

금호타이어는 “화재 당시 공장에는 전체 500여명이 근무 중이었고 34명이 불이 난 공정에 일하고 있었다”면서 “고무를 가열하는 산업용 전자레인지(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산업용 전자레인지는 소방관리자, 설비, 현장, 관제센터, 자재 공급 관계자 등 총 12명이 매일 예방·점검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점검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화재 당시 적극적인 초기 진압이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자동 감지기와 CO2 소화약제 등을 공장에 구비해 뒀다. 초기에 소화 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됐으나 진화에 실패해 수동으로 소화약을 사용했다”면서 “매연이 심해져 직원들에게 3차례 방송으로 대피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김 공장장은 “방화문은 설치돼 있고 정상 작동했다”며 “소방 브리핑 때도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런 부분들은 감시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복귀 가능성과 가동 재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계속 연기가 나고 있다. 설비 상태도 파악이 안 된다”며 “복구 여부와 재가동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의 휴업수당, 고용정책 등 생계에 대해서도 “현장 상태 파악이 선행된 후에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 어떤 조치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 당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화재 연기를 피해 대피하던 중 지붕 쪽에서 추락해 척추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회복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선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많은 피

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걱정해 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번 화재로 7개 공장 중 4개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공장 전체 전원과 전기 설비가 차단돼 복구와 상태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모회사인 더블스타(중국)가 이번 화재에 대해 금호타이어에 전달한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홍진 기자 yhb9792@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jh4415@gwangnam.co.kr

소방청, 금호타이어 화재 합동조사단 운영

8개 기관 16명 구성...내달 20일까지 현장 감식·분석

소방청은 22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의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다음달 20일까지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중앙화재합동조사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했으며 민간 분야 공학박사와 화재·안전 분야 대학 교수진도 자원위원으로 나선다. 특히 최초 발화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재현 실험을 주관해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적·기

계적 작동 상태 분석 △연소 확대 경로·물적 피해 범위 파악 △방화 가능성·관리소 등 여부 검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으로 화재의 전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밖에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비롯해 유해 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과 보완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조사는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제조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유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광주YWCA 관계자들이 정책 요구와 투표를 독려하는 유권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첫 삼도 못 떠...동명 카페거리 교통 개선 '난항'

불법주차장 불편 속출...일방통행 운영 결과에 주민 결사 반대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교통 체계 개선사업이 첫 단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불법 주·정차 방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방통행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이 불수용 의사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동구청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24년 10월 광주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용역보고서가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동명동 카페거리의 생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체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발간됐다.

동명동 카페거리는 양방통행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6m 미만의 도로 폭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구역은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도로가 정비됐지만, 보도,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보행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동부경찰과 협의를 거쳐 일방통행 구간 설정, 주차장 확보, 출좌 주·정차제 시행, 단속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등 개선책을 내놴다.

개선책의 가장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일방통행 구간 설정이다.

일방통행 구간은 동명동 154-206~200-9(동명동26번길, 동계로 방향), 동명동 197-24~39-10(동명로14번길, 푸른길공원 방향), 동명동 154-116~154-67(여행자의 집 방향) 등 3개 구간이다.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해당 개선책에 대해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동구가 지난해 7월, 9월 주민 83명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시행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 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설문 조사(38명)에서는 76.3%가, 2차 설문조사(45명)에서는 91.1%가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주요 이유는 통행 불편이 39.7%로 가장 높았고, 우회 거리 증가 30.2%, 상업적 피해 20.6%, 주차·보행 공간 충분 7.9%, 기타 1.6% 순이었다.

특히 주민, 상인들은 물론 상·하차 시 교통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는 수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이해를 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방통행이 결정되면 출좌 주·정차제 시행(동명동 184-6~168-4), 단속카메라 설치, 보도·차도 분리 운영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교육청, 첫 유권자 투표 독려 캠페인

SNS 채널로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활동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체험하고, 투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광주지역 학생 유권자는 6442명이다.

시교육청은 22일부터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투표 독려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당신의 한 표가 내일의 대한

민국을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26~27일에는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 △학생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 운동 △청소년도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등 투표방법, 절차, 정보 등을 담은 카드뉴스도 배포하는 등 선거 직전까지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동참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DECK ROAD

에겐 친환경 데크로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YEKUN, 주식회사 에겐

I·B·O·O·M

Prunus

W33LO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T. 031-943-6114 F. 031-943-6698 E. yekun@yekun.com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6 2F T. 02-324-1140 F. 02-324-3270 E. yekun@yekun.com

www.yekun.com